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17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중전 합의 이후 인도 증시 전망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으로 국제유가 급락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의 중전 합의 서명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인도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달러대에서 85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간 고유가 국면은 경상수지 악화, 루피화 약세, 물가 부담을 동시에 자극하며 인도 경제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유가 상승은 인도 증시의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했던 내수소비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높였고, 루피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부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지연시키며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점에서 중전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기대는 인도 증시에 분명한 호재로 평가된다. 실제로 인도 NIFTY50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전 가능성 시사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심리 개선을 반영했다.

인도 증시에 호재는 맞으나,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판단

다만, 중전 합의만으로 인도 증시의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선박 운항과 원유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유가 역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단기간에 되돌아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고유가 국면에서 부각됐던 우려들이 당분간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우며, 이는 인도 증시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물가 측면의 경계심은 여전히 높다. 5월 WPI는 YoY +9.7%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가격은 4월 +24.9%에서 5월 +30.3%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도매 단계에서 누적된 비용 압력이 시차를 두고 소매물가에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급락에도 물가 부담 완화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수급 측면에서도 유가 급락과 루피화 안정 기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를 자극할 수는 있으나, 본격적인 복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후 글로벌 자금이 AI·반도체 등 성장주로 재차 집중되고 있는 반면, 인도 증시는 해당 테마에 대한 직접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단기적으로 신흥국 내 자산배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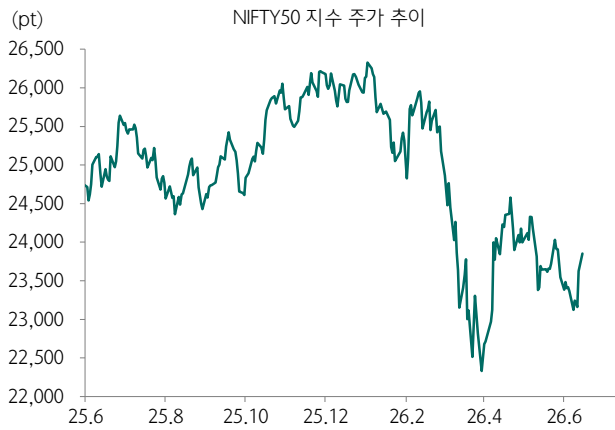
단기 반등 폭은 제한될 가능성, 중장기 관점에서의 접근은 유효

종합하면 이번 이슈는 인도 증시의 단기 반등 요인이다. 다만 원유 공급망 정상화까지의 시차, 도매물가를 중심으로 누적된 비용 압력, 외국인 자금의 AI·반도체 테마 쏠림 등을 감안하면 반등 폭은 제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견조한 펀더멘털이 확인될 경우 낮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을 바탕으로 인도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은 재차 부각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 관점에서의 접근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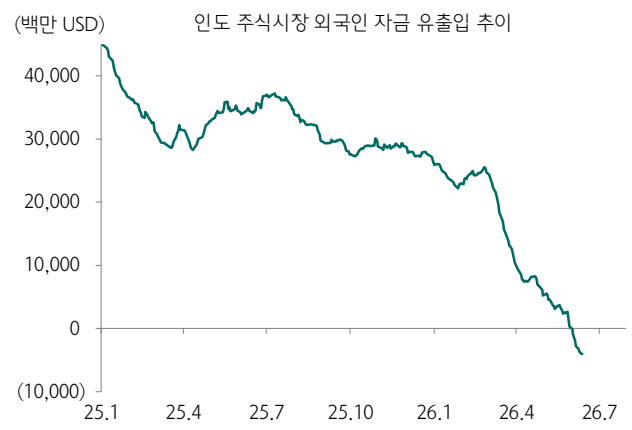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도표 1. 인도 NIFTY50 지수 주가 추이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2. 인도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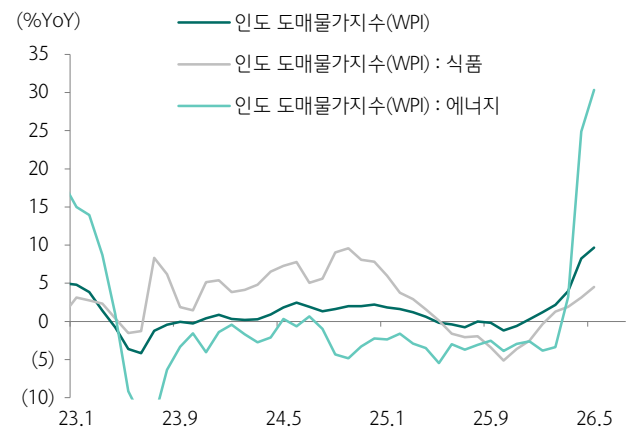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인도 달러/루피 환율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인도 도매물가지수(WPI)



자료: CEIC, 하나증권